

여전히 철거 감리자 없고 권한도 '무용지물'

오늘 광주 학동 붕괴참사 2주기 허가제 건물 2개 제외 철거 완료 '철거 땀 감리자 철수' 관행따라 철거현장 관리·감독 부실 여전 인력난에 안전센터 부분 중지 전문가 "감리제 사각지대 해소될"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 현장에서 '학동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리는 가운데, 학동4구역 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붕괴 참사(학동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행처럼 이어지던 폐단은 아직도 여전하다. 상주해야 될 감리자는 현장에 보이지 않았고, 참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설립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참사 2년 무엇이 변했나
지난 7일 찾은 동구 학동 4구역 철거 현장.

재개발 지구 주변에는 긴 철제 안전 펜스가 뿔뿔히 세워져 있다. 울타리 넘어 솟아있던 붕괴 건물은 어느새 자취를 감춰 보이지 않았다. 약 3만8000평(12만5619㎡) 규모의 철거 현장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였다.

시공사 현대환경산업이 동구청에 요청한 허가제 건물 41개 중 39개가 철거 완료됐고, 약 150여 건의 신고제 건물은 철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완료되지 못

한 허가제 2건은 지주와의 금액적 견해 차이 등으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철거 마무리 작업과 함께 완료 후 발생한 폐기물 분출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어디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감리자는 보이지 않았다.

현장 관리소 관계자는 "사무소에 현장 소장 밖에 없다. (감리자는) 평소에도 '드문드문' 나왔다"며 "신고제 건물 철거 과정에서 감리자가 필요없다. 현재 (허가·신고제 철거 이후) 폐기물 분출은 우리(시행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감리자는 해체 후 부지정리 등 마무리 작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즉 철거 현장 최종 시점까지 책임져야 할 감리자가 그보다 일찍이 관리·감독을 마친 것이다.

건설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박힌 폐단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 건축전문가는 "법령·계약서 상 명시에 따라, 감리자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들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쉬쉬한다. 특히 많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지켜지지 않는다. 철거가 되면 대부분 현장에서 감리자는 철수하는 식이다. 결국 철거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시 이를

저지할 감독자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동4구역 철거감리사무소 관계자는 허가제 건축 폐기물과 신고제 건축 폐기물이 뒤섞여 현재 분별하기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올 초 모든 작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감리 역할은 충실히 수행했다"면서도 "벌써 수개월이 지나 폐기물 분별이 힘든 상태. 남은 작업은 현재 시공사 측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제도 있으나 마나
변한 것이 없는 것은 학동 뿐만이 아니다.

학동참사 이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립된 광주 동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안전센터)는 현재 거의 멈춘 상태. 일할 사람이 없어서다.

동구는 학동참사 이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4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안전센터를 설립했다. 안전센터는 보통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노후건축물 점검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건축사·건축 구조 기술사 등 2명의 실무자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실무자는 1명 뿐이다.

이는 전문인력의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수준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건축사나 기술사의 평균 연봉은 역대가 넘는다. 하지만 안전센터는 6급 수준의 연봉이 책정돼 한참 못미친다"며 "구조 기술사가 광주, 전남, 전북을 합쳐도 30명이 채 안된다. 낮은 연봉에 구청까지 와서 일 할 전문인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리자 권한도 큰 변화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주요 구조부 결합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의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라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셈이지만 지역 건설 현장 어디에서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권이 있지만 자칫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손해에 따른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명백한 부실 시공이 있지 않는 한 감리자가 선뜻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사 중지를 해도 해체공사 업체와 감리자 간의 분쟁도 종종 발생한다"며 "감리업체가 시행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계약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송민섭·정성현 기자

안경집에 마약 넣고 밀반입... 광주지검 14명 기소

5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도자기 받침대와 약통 등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A(35)씨 등 태국인 8명, 베트남인 B(26)씨, 자국민 C(23)씨 등 5명 등 총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사이 국제특급·소포우편을 이용, 야바·케타민·필로폰·MDMA를 국내로 반입·투약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자기 받침

대·커피 포장지·약통·담뱃갑·안경집 등을 이용해 마약을 숨겨 반입했다. 5000원·1000원권 지폐를 맡아 마약을 흡입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4억 3500만원 상당의 야바(YABA)·MDMA 2만4179정과 케타민 3.5kg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국민 5명 중 C씨는 10대 청소년을 속박업소로 유인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마약 5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송민섭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광주지역 82개 시민 단체들이 8일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시민단체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관련기사 1면 김혜인 기자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